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너를 위해 투표해라. 많은 희생으로 투표권을 얻었다.”

선거 전날, 멀리 있는 팔에게 꼭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생물체 같다. 투표소에 줄을 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작은 행동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개인의 삶도 작은 행동이 중요하고, 나랏일도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 ‘작은 행동’을 추구하는 필자는 콩나물에 물을 주듯 자신을 위한 ‘작은 행동’을 매일 하는 것, 크게 웃기, 하늘 한 번 보기, 계단 오르기, 건강한 음식 나누기, 작은 들꽃에 갑탄하기, 칭찬하기 등등이 행복의 비결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피로 물들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에서 민중은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남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 최빈국이 됐던 대한민국. 기본 인권도 주장할 수 없는 노예 같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자식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민중의 부모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버려진 국민이었던 독재 시절을 건디

주권자의 작은 행동

며 1987년 우리 손에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까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을 싸잡아서 운동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주니 고마웠다. 독립운동가와 민주투사들 덕분에 좋은 세상이 왔지만, 아직도 옥중에서 싸우며 이번 선거에 소나무당을 만들고 지역구에 출마한 결기의 운동권 출신 송영길.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검찰독재에 투쟁하는 그의 옥중 유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다. 선거가 끝나고 동물의 왕국과 같은 정치의 세계를 다시 확인한다.

필자는 요즘 독재자 박정희가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하자, 국민을 벌레 취급한다고 펼쳐 일어나 국가권력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전남대학교 운동권 농대학생의 이야기를 샌드애니메이션으로 작업 중이다. 독재에 저항하면 질차도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두고 실종되면 시신으로 발견되던 시절이었다.

샌드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윤한봉 선생이다. 합수(合水)라는 별칭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퇴비’처럼 살다 간 분이다. 대학시절, 민청학련 사건 등 세 번의 옥고를 치르고 나왔지만, 꺾이지 않고 조직적으로 투쟁을 이어갔고, 또 수배자가 된다. 전두환 군부쿠데타로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터지자 수배자의 몸으로 도망자가 된다. 잡히면 광주·전남 운동권 동지들이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염려돼 밀항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미국에서 최초 정치망명자가 된 윤한봉 선생은 10여 개의 재미한국청년연합, 민족학교, 한겨레 운동 미추연합 등 조직을 만들어 조국의 평화운동과 5·18진상규명 활동을 펼친다. 미국에서 광주 오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연대활동은 조국에 있는 동지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망명한 명에를 지고 살아가는 통탄의 시간이었다. 1989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은 윤한봉 선생의 기획이었다. 우리는 전대협을 대표해서 임수정이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인종차별, 소수자 인권 연대의 일을 조직적으로 펼치며 멈추지 않은 운동을 했던 윤한봉 선생은 1993년 협의를 맺고 귀국의 길이 열린다. 오월 영령들이 잠든 묘역을 찾아 동지의 묘비 앞에서 더 큰 광주 오월의 명에를 지고 또 조직운동을 한다. 5·18기념재단을 만들고 김남주 기념사업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등을 만들어 동지들의 정신이 이어지도록 했다. 1995년 민족미래연구소를 설립하고 대동정신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도록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작은 행동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름도 남김없이 떠났고 이제 역사가 됐다. 우리는 운동권이라고 참 함부로 말한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고 투표용지 한 장의 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흘린 피가 한 장의 표에 얼룩져 있다.

社說

준엄한 국민의 명령...여야 영수회담부터 추진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국민의힘의 읍소 작전도 먹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대 보다 강력해진 여소야대 지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당장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인적 개편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구만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2연속 압승이다. 최대 승부처 서울 한강벨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낙승을 거뒀다. 텃밭인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에선 전석을 싸늘이했다. 대야 투쟁의 선봉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은 3당으로 캐스팅보터 지위를 확보했다. 범진보 진영 전체론 19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낙동강벨트 등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사수, 개헌저지선(100석)을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정권 심판에 맞서 ‘이(재)문·조(국) 심판’으로 맞불을 놔지만 실패했다.

대선 이후 적대감 넘치는 대결이 지속됐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도 한 번 없는 불통의 시

기였다. 여전한 고물가와 환율, 유가료 경제 위기는 짙어지고 서민의 주름살은 깊어졌다. 삶은 갈수록 힘에 부친다. 결국 민심은 집권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남은 3년의 임기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완전하게 정국 주도권을 옮겨준 아권은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으로 압박할 태세다. 지도부 줄사퇴로 어수선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극복하는 등 강도높은 혁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무게 추가 더 기울었으나 기존의 의회 구도가 유지됐다. 군소정당들이 초라한 성적을 내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오히려 공고해졌다. 대한민국이 딱 반으로 갈렸다. 정치가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쇠신하지 않는다면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분열과 갈등은 가속화된다. 민주당도 잘해사 아니다. 반사이익이다. 정쟁을 멈추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진짜 민생을 살피야 한다. 여야 영수회담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야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은 전남도 적극행정의 결과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익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자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대상 부지는 이른바 고속도로 법면이다. 도로를 내기 위해 도로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을 일컫는데 실제로 사용 못하는 유휴지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용도로 유용하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5MW, 80억원 규모로 설치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고속도로가 신재생에너지의 길로 재탄생하게 됐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흐린 날씨가 늘었지만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일사량으로 태양광발전의 최적지로 꼽힌다.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고 하며 사업자들의 관심도 많고 앞다퉈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남도는 2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남군 산이·마산 영농특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 회도 발족,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국내 첫 사례로 투자액이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영산강 III-1지구 간척지의 영농특화단지 505ha(약 153만평)에 400MW 규모로 구축, 해남 기업도시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을 공급한다.

전남도는 각종 고속도로 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도 도로공사를 방문해 최초 제안하고 실무협의회를 계속해 성사시켰다.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발전소를 본격 확대해 당면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매개가 거듭되기 위해 전남도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문화난장



이세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팀원

총선의 전국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사전 투표를 상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작년에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뿌듯했다. 작년 여름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막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린아이이다. 당연하게도 아빠와 사전 투표에 함께했던 사실을 기억하진 못할 것이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체험시키고,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 투표소를 방문했다. 혼자자 아니어서였을까, 아이를 품에 안은 손도 무거웠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마음가짐 또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니 세상을 보는 시선과 생각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인도는 울퉁불퉁한 바닥에 유모차를 탄 아이의 머리가 흔들릴까 걱정이 앞섰고, 산책하며 돌아다니던 골목길은 갖길 주차로 시야가 좁아진 위험지대가 됐다. 이번 선거도 그랬다. 나는 우리 아이와 살아갈 사회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직접 투

어린이들에게도 참여권이 주어지기를

표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목소리를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는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대부분의 나라는 성숙도와 책임성을 반영해 선거권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사회 참여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사회의 일원인 아이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모의 선거’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피고, 직접 토론에 참여해 투표까지 진행한다. 덴마크는 2년에 한 번씩 정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 선거를 실시한다. 당연하게도 선거 운동 기간이 있으며, 당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400여 개의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회를 한 후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는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있다. ‘초록우산’에서 진행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이다. ‘미래에서 온 투표’는 투표권이 없어 공약 수립 과정에 배제되기 쉬운 아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공약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 올해는 전국 1만 6천여 명이 지지한 교육·학교, 놀이·문화, 폭

력, 안전, 복지,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이라는 6개 분야에서 총 18개 공약을 총선에서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공공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내려 무산됐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진행된 모의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로 비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 선거권 연령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처럼, 준비된 유권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체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젊은 세대로 성장할 아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사회 안에서 참여 의식을 높이고, 공동의 책임감, 권리와 의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저출산이 해결됐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다음 선거 때는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주인공인 정책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선거권자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면 좋겠다. 그런 날이 좀 더 빨리 오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기후재난 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로 우리 이웃이 위협에 빠졌을 때 서로 도와주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필요성 대두로 현대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에서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책임있는 모든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확산 필요성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생활접점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역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한 전략홍보 ▲슬로건 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게재 등의 방법으로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 중이다.

특히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의 실현을 위해 고려자가 많은 지역 특성에 걸맞게 노인회, 마을회관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난대처 기초 지식 반복숙지와 조력자의 대응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한다.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체험시설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동체험차량이 방문해 다양한 소방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홍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김정현·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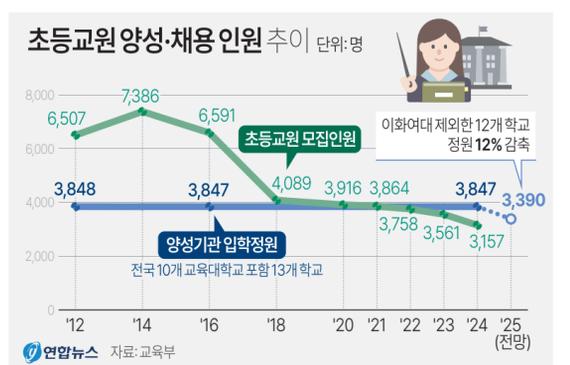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교대 입학정원, 13년 만에 줄어든다...내년부터 12% 감축

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이 현 고이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



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지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천847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0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3천30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도 3천848명에서 2016학년도 3천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